



세상은 포도알처럼
모두 둥근 마음으로
뭉쳐서 사는 거야

이 길은 두고두
고 즐겁게 걸어
가는 길이야

주 소 :

연락처 :

모두 둥근 마음으로...

심장은 하루에 십만 번 움직입니다 .

일요일도 휴일도 ,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 구분 없이 계속해서 뼉니다 .

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. 태어나서 1 분도 쉬지 않고 숨을 쉬는 덕분에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.

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.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.

대체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요 ?

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님께서는

“세상은 포도알처럼 모두 둥근 마음으로 뭉쳐서 사는 거야 . 이 길은 두고두고 즐겁게 걸어가는 길이야”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.

그리고 신님은 인간들이 서로 도우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기고 싶다는 의도에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.

우리 몸도 생명도 , 가족도 주위 사람들도 모두 ,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늘이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.